

■ 문학지 겨울호마다 불교소재 詩 ‘풍성’

“佛香의 詩語 인가슴 녹인다”

파산한 경제로 겨울이 더 춥다 그러나, 어쩌면 한편의 詩는 잔잔한 감동으로 마음의 한파를 막아주리라

경제 한파! 감원! 갑작스런 맹추위...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겨울을 맞았다. 최근 속속 발간된 문학계간지 겨울호들은 유난히 불교소재 시를 많이 실고 있다. 불향이 잔잔히 배어있는 시들을 찾아 읽으며 공경 얼어붙은 심신을 녹여 보면 어떨까. <현대문학> <시와 산문> <문예중앙> <시와 시학> 등의 문학지에는 화엄사·회암사지·감은사지 등 절을 소재로 한 시들이 풍년을 이루고 있다. '초여름 비 그치고/자재암 향내 따라 길으며/바람에게 묻는다//삶은 죽을 밖에서 이루어지거늘/인제나 그 문 열리겠는가/바람은 내리는 쪽 포나 울려보란다/감은 눈가뭇물을 간질이며// <문학동네> 겨울호에 실린 김중훈 시인의 '소요산에서 소요(逍遙)하다'는 산행길에서 느낀 삶의 의미를 그리고 있다. 이외에도 최동호 시인의 '모래그림 만다라-달

마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를 비롯 인도 푸나데 학에서 박사과정 중인 재연님의 '다시 찾는 보드가야' 등도 눈길을 끄는 시다. '구레 화엄사 원통전 앞/석탑을 머리에 인 네 마리 사자/앞에서 본 두 마리는 입 크게 벌려 웃고/.../즐거운 자와 괴로운 자의 명암은/화엄의 세상에도 존재한다고 몸소/시법을 보여주는 불 담 앞 네 사자들/...' <현대문학>에 실린 '그대에게 가는 길·8'. 이 시에서 임영조 시인은 화엄사 원통전 앞의 사자상을 통해 임제선사까지 아우르는 불교적 깊이를 보이고 있다. 박세현 시인의 '화엄사 편지'와 <시와 산문>지에 소개된 송유미 시인의 '화엄사 가는 길'은 구도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문예중앙>은 '감은사를 추억하다' '천수대비가' 등으로 제19호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받은 권혁용 시인의 시를 선보이고 있다. 임영조 시인

의 '나의 방', 김우연 시인의 물고기를 헤탈한 조주선사로 비유한 '뇌운리' 등도 눈길을 끈다. <시와 시학>은 제2회 '시와시학·작품상'을 수상한 정희성 시인의 '경기도 양주군 회암사엔/절 없이 절터만 남아있다'는 '詩를 찾아서'와 황금찬 김성욱 시인의 '인수봉', '흔적으로-감은사의 터' 등을 실었다. 오세영 홍신선 시인의 '사람의 의무' '철원행' 등이 실린 <동서문학>에는 불법승의 일본식 발음이 '뫼포소'라는 것에 착안한 김광림 시인의 '佛法僧(불법승)소리'가 수록됐다. 이밖에 이형기 백우산 백연숙 시인의 신작시가 담긴 <창작과 비평>, 김혜순 안도현 시인의 시가 실린 <한국문학>, 신경림 시인의 최근작을 소개한 <당대비평지> 등도 잔잔한 감동으로 독자들에 다가온다.

김지연 기자

불심시심 <110>

어느 것인들 선 아난가

地盤皆生水 땅 파면 모두 물 솟고 (지착개생수) 雲收盡碧天 구름 걷히면 다 푸른 하늘 (운수진벽천) 江山雲水地 강과 산, 구름 물 있는 곳 (강산운수지) 何物不須離 어느 것인들 선 아난 것 있는가. (하물불거선)

목암(默庵·1717~1790)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이름은 최 놀이고, 자는 이식(耳食)이고 목암은 호이다. 대여섯살 때부터 글씨가 써 있는 종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주위서 벽에다 붙여 놓고는 내 차차 배워서 알리라 하였다 하니, 속세에서부터의 인습된 영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겠다. 14세에 정광사(澄光寺)로 출가하였다가 18세에 만리(萬里)대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풍암(楓巖)대사에서 경전의 가르침을 받고, 이어서 여러 대덕에게 두루 참여하여 내외의 경전이나 격외의 선지를 두루 깨우쳤다. 27세에 다시 풍암대사에게로 돌아왔을 때에는 선과 교의 두 문을 모두 통하여 앞 사람들이 미처 퍼내지 못한 것을 발명함이 많으니 사람들이 감탄하였다 한다. 대사의 시는 선기를 노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대로 선기가 함축되어 있다. 앞의 시는 선객에게 주는(贈禪客) 시이다. 여기서도 천하 만물 어느 것인들 선이 아니겠느냐는 대 진리를 말하면서 있는 자연 사물의 실상이 그대로 선이라는 담담한 논리에 불과하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구조란 우선 하늘과 땅을 떠나서는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 여기서도 이 하늘과 땅을 서두에서 전제하고 시작한다. 그럼에도 땅에는 무엇이 있는가. 땅을 파면 어디에나 물이 솟는 것이 일반적인 진리이다. 무한 공간의 절대적 상층은 하늘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하늘보다는 구름을 흔하게 본다. 그러기에 구름이 바로 하늘인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세속적 삶의 일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구름을 경계하여 하늘임을 안다. 우리 속인들은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는 물이나 하늘을 이해하려면, 그 가리워짐이나 감추어져 있는 구름이나 땅을 파헤치지 아니하고서는 볼 수가 없다. 선의 깨우침이란 어쩌면 이 가리워짐을 걷어내는 수련이 아닌가. 어느 때는 이러한 진리의 담담한 체인 물이나 하늘을 찾고서도 너무나 평범하기에 진리인 줄을 모르고 가벼이 여겨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당체이다. 이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작업이 구선의 작업이다. 걷어낸 결과 바로 선이다. 이 시는 이러한 구선의 실상을 주변 사물에서 쉽게 이해시키려 한 스님의 담담한 자세를 보게 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전문안내자 없고 늘어놓기식 진열 정보전시관 제기능 못한다”

이태호교수 지적

박물관 관람객들은 단순한 나열식 전시보다 인형을 활용해 옛 모습을 재현하는 입체적 전시를 선호하고 있으며, 전시실을 설명해줄 안내자를 필요로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가 11월29일 개최한 '박물관과 교육' 세미나에서 이태호교수(전남대 미술교육학과)가 발표한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교수가 국립전주박물관 관람객(2백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전시실은 민속실(31%), 선사고고실(17%), 미륵사지실(16%)순. 미륵사지실의 경우 미륵사지를 축소복원한 모형은 비롯 발굴현장사진과 복원도, 타 유물과의 비교 등 다양한 영상 보조자료의 활용이 눈에 띈다. 반면 역사자료·서화실(7%), 불교·금속실(6%)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유물의 성격상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작품만 늘어놓은 평면적인 진열방식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현재 문을 열었거나 건립중인 정보전시관에 참고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전시관은 유물을 마치 백화점 물건처럼 진열해 놓거나 아예 전시관 자체를 자물쇠로 채워 놓고 있다. 전문인력이 없는 곳도 허다하다. 대학박물관 가운데 가장 정보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동국대박물관 전시실은 조명이 어둡고 너무 비좁아 한정된 수만의 정보를 관람할 수밖에 없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정보전시관도 발달제한은 물론 해당사찰의 복원모형, 사리장치의

불안을 담은 사진, 부처님 수인과 의미를 설명하는 판넬 등 관람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전시행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 발우공양이나 다도, 화선 등 스님의 생활을 재현해 놓은 사찰생활실을 마련,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도 추진해 볼만하다. 또 정보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식시키고 전시행위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관람객을 위한 전문 안내자는 필수. 한상길연구원(동국대 박물관)은 "정보전시관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들에 의한 박물관 건립과 유물 선정, 전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기서 기자

조계종 마곡사(주지 절웅)와 동화사(주지 무공)가 각각 합창단을 창단했다. 동화사 불향합창단(단장 오정순)은 1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1천여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첫 음성공양법회를 가져 호평을 받았다. 김만법씨가 지휘를 맡고 있는 동화사 불향합창단은 노래에 소질을 있는 동화사 여자신도 6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9일 공주문화회에서 개최된 공주시민을 위한 대법회에서 첫 음발표회를 가진 마곡사합창단(단장 이효성)은 3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휘는 '삼귀의'를 작곡한 최영철씨가 맡고 있다.



◇내년 3월 28일부터 외국인들에게 공연되는 영산재. 이를 위해 3일 관광공사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가졌다.

봉원사 영산재 내년 상설 공연

3월부터... 발우공양 외국인관광객 체험기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불교의식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50호)를 관람하고 발우공양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봉원사(주지 대운)는 3일 한국관광공사 여행업체 기자 등을 초청, 영산재 시연회와 발우공양을 갖고 내년 3월28일부터 영산재를 상설화 한다고 밝혔다. 매주 2회 토(오후5:30), 일(오전11:30)요일에 봉행될 영산재는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비·뱀고·바라춤·회심곡 등을 50분간 공연하며 발우공양은 약식화해 외국인들에게 체험케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광공사는 한·영·일문으로 된 홍보책자 발간, 영산재를 널리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관람료는 보시금 차원에서 2만원으로 결정됐다. 영산재보존회장 대운스님은 "외국인들에게 영산재와 발우공

“자연속에 투영된 인간내면 찾기”

이상범시집 ‘별’ 출간



인간의 따스한 내면을 아름다운 시어를 통해 펼쳐보이는 시인 이상범(62)씨가, 끊임없이 정신의 자유를 갈망하고 치열한 내적고민을 회망의 시작(詩作)으로 연결시켜 온 이상범시인이 시인생 35년을 결산하는 대표시집 <별>(동화사 刊)을 발간했다. 갈등과 화해속에서 더 높은 정신의 경지를 추구하는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수년의 역사속에서 시련받는 민족의 삶, 또는 고달픈 민중들의 아픔

과 슬픔을 1백20여편의 시속에 눈부신 서정으로 펼쳐낸다. '날들면 유순한 짐승/얼더 어 코고는 바다/새도록 컷전에 앉아./.../해지자 먹물 같은/장삼을 걸친 채/우주의 한 모퉁이를 허물며/짐승처럼 울었다(청량색 바다 중) 등은 자연에 대한 내적통찰을 표현했다. '징역 살 듯 살아온 생애,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그나름의 별이었으면 싶다. 새록새록 꿈을 꾸며 가슴마다 알알이 박히는 별이었으면 싶다. 그리하여 끝내는 하늘에 박히는 별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이상범시인은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은유적으로 풀어보이고 있다. <은>



광주불교 합창단 성황 북동포도기 공연 북한동포 돕기 '97광주불교합창예술제가 11월 30일 광주남도예술회관에서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예술제는 사암연합합창단 합창사·화엄사 증심사 한미음선원 선덕사 등 6개 합창단과 정율스님 한미음선원 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해 '반야심경' '빈손' 등 아름다운 찬불가로 겨울 한파를 따사롭게 녹여주었다. 이번 예술제의 수익금은 귀순자모임인 남순지장회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돕기에 쓰여진다.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좋은 책 할인 판매

-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그동안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책만을 엄선하여 '할인 판매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만물이 깨자리로 향하는 이 깊은 가을, 여시아문에서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한가로운 도인의 길 김달진역주/세계사/ 8000 → 5000원
태고집 원서 판 / / 8000 → 5000원
선이란 무엇인가 장승용 역주 / / 10000 → 6000원
대승기신론 비명 / / 8000 → 5000원
한산시 김달진 역주 / / 10000 → 6000원
동양의 지혜와 선 심재홍 / / 12000 → 6000원
노자 그 불교적 이해 감산대사 / / 10000 → 6000원
자아의 책 박원화 옮김 / / 4000 → 2000원
부처님이 올 수 없는 땅 심재홍 / / 4000 → 2000원
한 그루의 우주 나무와 신화 김열규 / / 4000 → 2000원
보살은 누구인가 목우 / / 4500 → 2000원
산거림기 김달진 / / 3500 → 2000원
한·중 불교 문화 교류사 한우복 외/ 까치/ 15000 → 8000원
초서자전 권립무/ 까치/ 30000 → 15000원
중국 불교 사상사 키무라 키요타카/ 민족사/ 4000 → 3000원
밀교의 역사와 문화
요리토미 모토히로 외 / / 5500 → 3000원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 사토 미즈오 / / 4200 → 3000원
원효의 인식과 논리 신현숙 / / 3500 → 2000원
불교의 현대적 조명 고수복자연합외/ 5500 → 3000원
인도 불교의 역사 히라카와 아키라 / / 6000 → 3000원
인도 불교 사상사 에드워드 본즈 / / 5500 → 3000원
중국 불교 상 KS 케네스 쉐 / / 5000 → 3000원
묘법연화경 광우 / / 8000 → 5000원
북한의 절과 불교 정태희 외 / / 5000 → 3000원
법구경 에피소드 정태희 / / 4500 → 3000원
논어와 신 한토 다이가 외 / / 4500 → 3000원
푸른 산빛을 깨치고 권보삼 / / 4500 → 3000원
불교와 그리스도교 히로사치야 / / 3300 → 2500원
소승 대승 히로사치야 / / 4300 → 3000원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
논란몰리니 제이공슨 / / 3500 → 2500원
환상의 타임머신 손영성 / / 3000 → 2000원
금강경 김지연 / / 4500 → 3000원
중화의 지혜 중국민중사상연구회 / / 5500 → 3000원
선정생수의 전개 한보광 / / 5000 → 3000원
붓다와 다르마 BR. 암베드카르 / / 5500 → 3000원
인식과 초월 핫토리 마사아키 외 / / 4300 → 2500원
단뜨라 불교 입문 S.B. 다스 / / 4000 → 2500원
중국 중세불교 사상 비판 임계유 / / 4500 → 2500원
대승불교의 사상 우에다 요시부미 / / 3500 → 2000원
천태 법화의 사상 티무라 시로우 외 / / 4000 → 2500원
일본 불교사 이영자 옮김 / / 5000 → 3000원
화엄경 이야기 카타타 시게오/불교시대사/6500 → 3900원
대승기신론 이야기 카타타 시게오 / / 4300 → 2500원
불교학개론 강의실 1,2 장휘숙 / / 4500 → 2700원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라 조오현 / / 4500 → 2700원
슬픔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김정류 / / 4800 → 3000원
미륵상생경 외 경전연구모임외 / / 2500 → 1500원
아미타경 외 / / 2500 → 1500원
옥야경, 선생경 외 / / 2500 → 1500원
유마경 / / 2500 → 1500원
금강경, 승만경 / / 2500 → 1500원
지장본원경 외 / / 2500 → 1500원
본원행원품, 관세음보문품 외 / / 2500 → 1500원
법구경, 사십이장경 / / 2500 → 1500원
조상공덕경, 조탑공덕경 외 / / 2500 → 1500원
부모은중경 외 / / 2500 → 1500원
선문선답 조오현 / / 5000 → 3000원
행복한 마음 김정성/ 김영우/ 5900 → 4000원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